

#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신 명 호\*

1. 머리말
2. 선조의 생가와 왕실
3. 선조의 파천결정
4.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양상
5. 임해군과 순화군의 항전활동
6. 맺음말

##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왕조 500년간 있었던 최대의 국난 중 하나였다.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장장 7년여에 걸친 전쟁으로 조선의 거의 전 국토가 유린되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농토는 황폐화되었다. 이 같은 국난이 발발한 초반에 국왕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파천 길에 올랐다. 또한 국왕 선조는 조선 내부의 힘만으로는 왜군을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이 결과 해방 이후 임진왜란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선조는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세자 광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해군을 제외한 선조 직계가족의 항전 활동 역시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義兵 활동, 水軍 활동, 官軍 활동 및 세자 광해군의 分朝活動 등은 임진왜란 극복의 원동력으로서 수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sup>1)</sup>

하지만 왕조시대에 국왕과 그 직계가족의 안위 및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임진왜란 초반 연속되는 패전 속에서 선조와 그 직계가족의 안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신립 장군의 충주 패전이 한양에 알려진 직후에 결정된 파천 역시 근본적으로는 선조와 그 직계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왕조시대의 국왕과 그 직계가족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였다. 국가가 멸망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난 시에 국왕과 왕족은 국난극복에 솔선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 중 선조의 파천은 단순히 국왕과 그 직계가족의 안위만이 아니라 국난 시 국왕과 그 직계가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항전활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선조 25년(1592) 4월 29일 한밤중에 파천이 결정된 직후, 선조는 그의 직계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동시에 그의 아들인 임해군과 순화군을 함경도와 강원도로 보내 勤王兵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는 선조가 자신과 직계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절박감에 더하여 국왕인 자신과 직계가족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항전활동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결합되었기에 나타난 결과였다.

이미 선조의 가족 구성원과 파천 과정 등에 관하여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선조의 가족 구성원 자체에 주목하였거나 파천 과정 자체에 주목하였을 뿐, 이를 국난 시 왕실의 안위 확보 및 왕실의 국난 극복 솔선이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1) 임진왜란의 연구사에 대하여는

오종록, 「임진왜란-병자호란 시기 軍事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8, 1999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200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선조가 파천을 결정하기까지의 논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선조가 직계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국난 시 왕실의 안위 확보 및 왕실의 국난극복 숭선이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조의 파천과정에서 그의 직계가족들이 보여준 다양한 피난양상 및 항전활동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왕 선조와 그의 직계가족이 기여한 측면과 한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임진왜란 극복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 2. 선조의 생가와 왕실

선조는 1552년(명종 7)에 德興大院君과 河東府大夫人 사이에서 태어났다.<sup>2)</sup> 덕흥대원군은 중종과 중종의 후궁인 昌嬪 안씨 사이에서 출생한 왕자군이었으며 永陽君의 동생이었다. 덕흥대원군의 아들인 선조는 중종의 손자로서 처음에 河城君에 책봉되었다.

덕흥대원군은 본처인 하동부대부인 정씨와의 사이에 선조를 포함하여 아들 셋과 딸 1명 등 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또한 첩과의 사이에 庶女 1명을 두었다. 덕흥대원군의 자녀 5명 중에서 선조는 셋째였다. 즉, 국왕이 되기 이전 선조에게는 친형 2명과 친여동생 2명이 있었던 것이다. 河原君 李鏗이 큰 형이었고 河陵君 李鱗이 작은 형이었는데, 이들은 선조의 同母兄이었다.<sup>3)</sup> 또한 安滉에게 시집간 여동생은 동복 여동생이었고,<sup>4)</sup> 南忠元에게 시집간 여동생은 이복 여동생이었다.<sup>5)</sup> 이 같은 선조의 생가를 정리하면 <도 1>과 같다.<sup>6)</sup>

2) 『선조수정실록』 권 1, 총서

3) 『선조실록』 권 36, 26년(1593) 3월 10일(을축)

4) 『선조실록』 권 8, 7년(1574) 5월 23일(병신), “上以妹夫安滉中及第初試 喜而遺詩”

5) 『선조실록』 권 115, 32년(1599) 7월 29(병자), “南忠元妻(今上同生孽妹)”

6) 선조의 가족관계는 지두환, 『선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2 참조

<도 1> 선조의 생가

중종

|| -----영양군

창빈 안씨    덕흥대원군

|| -----하원군

하동부대부인    하릉군

하성군(선조)

녀(안황 부인)

|| -----녀(남충원의 부인)

첩

선조는 16살 되던 1567년에 명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당시 선조는 명종에게 立後되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명종과 仁順王后 심씨의 아들이 되었다. 선조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후인 1569년에 18살의 나이로 懿仁王后 박씨와 혼인하였다. 선조가 41살 되던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그로부터 정확히 보름만인 4월 28일에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었다.<sup>7)</sup> 이어서 2일 후인 4월 30일 새벽에 선조는 파천 길에 올랐다.

<도 2> 파천 직전 조선왕실의 왕위계승도

명종

|| -----선조(입후)

인순왕후 심씨    || -----광해군(세자)

의인왕후 박씨    ||

세자빈 유씨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에게는 배우자 5명과 자녀 9명이 있었다. 배우자 5명 중에서 1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으며, 9명의 자녀 중에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은 이미 혼인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선조 및 선

7)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8일, “冊封光海君 爲世子”.

조의 배우자 5명과 자녀 9명 그리고 자녀 6명과 혼인한 며느리 5명과 사위 1명을 합한 총 21명이 선조의 직계가족으로서 이들이 임란발발 시 조선왕실의 핵심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도 3>과 같다.

<도 3>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직계가족

선조

|| -----자녀 없음

의인왕후 박씨(朴應順의 딸)

|| -----임해군(1572년 생, 당시 21세)-며느리(許銘의 딸)

광해군(1575년 생, 당시 18세)-며느리(柳自新的 딸)

공빈 김씨(金希哲 딸)

|| -----신성군(1578년 생, 당시 15세)-며느리(申陞의 딸)

정원군(1580년 생, 당시 13세)-며느리(具思孟의 딸)

정신옹주(1582년 생, 당시 11세)-사위(徐湑의 아들)

정혜옹주(1584년 생, 당시 9세)

의창군(1589년 생, 당시 4세)

숙의 김씨(金漢佑의 딸)

|| -----순화군(1580년 생, 당시 13세)-며느리(黃赫의 딸)

숙용 김씨

|| -----인성군(1588년 생, 당시 5세)

정빈 민씨(閔士俊의 딸)

||

정빈 홍씨(洪汝謙의 딸)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조는 명종에게 입후하여 국왕이 되었지만, 생가의 형제자매는 여전히 선조에게 가까운 가족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당시 선조의 형제자매인 하원군 이정, 하릉군 이린, 안황 부인, 남충원 부인 등은 이미 혼인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자 따로 살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와 함께 궁궐에서 살던 직계가족은 배우자 5명과 함께 혼인 이전의 자녀들 3명 등 총 9명이었다. 조선시대 왕의 자녀는 혼인한 후 궐 밖으로 나가 사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조는 배우자 5명을 포함하여 혼인 전인 인성군과 의창군 그리고 딸 2명 중에서 혼인 전인 정혜옹주와 함께 궁궐에서 살았다. 나머지 혼인한 아들 5명과 며느리 5명 그리고 혼인한 딸 1명과 사위 1명 등 12명은 궁궐 밖에서 살았다.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발발했지만, 선조가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4월 21일이 되어서였다. 그날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문경에서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적은 神兵과 같아서 감당해 낼 자가 없으니, 臣은 오직 죽을 따름입니다.”<sup>8)</sup> 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접한 선조는 미투리 등 멀리 가는 도구를 구입하고, 또 사복시에 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정돈케 하였다.<sup>9)</sup> 이는 만약의 경우에 파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선조는 궁궐 밖에 살던 12명의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광해군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에 유자신의 딸과 혼인하고 궁궐에서 나가 梨峴宮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광해군은 1592년 4월 28일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그보다 3일 전인 4월 25일에 이미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sup>10)</sup> 이외에 신성군과 정원군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도 선조의 파천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sup>11)</sup>, 그들 역시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李鎰到聞慶馳啓曰 今日之賊 有似神兵 無人敢當 臣卽有死而已”

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於是 宮中亦有不固之志 遂質繩鞋等遠行諸具 又命司僕寺 整立馬 以待不時之用”.

10)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4월 28일(정사), “上微哂曰 光海君聰明好學 予欲立而爲國本 於卿等意如何 大臣以下 一時起拜曰 宗社生民之福也 申礪曰 梨峴之宮 扈衛宜當 上曰 予於春初 擇日將冊 而適其時德嬪喪事未葬 遷延至今 光海君入內 已三日矣 梨峴空宮 扈衛何益”.

11) 『선조실록』 권 26, 25년 5월 8일(정묘), “信城君定遠君及其婦人兩人 則各一日三時 侍女 手母下內人等 各一日兩時 自今日宣飯供饋”.

또한 정선옹주의 부마로 결정된 달성위 서경주 역시 선조의 파천을 수행하였으므로<sup>12)</sup> 그 역시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해군과 순화군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 역시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선조는 궐 밖에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 사위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 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파천이 결정되는 4월 29일 밤 이전에 궁궐에는 선조를 비롯하여 그의 배우자 5명, 아들 7명, 딸 2명, 며느리 5명, 사위 1명 등 선조의 직계가족 총 21명이 모두 모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조의 두 친형인 하원군과 하릉군 역시 파천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궁궐 안에 들어와 있었다.<sup>13)</sup> 즉, 선조는 자신의 직계가족과 친형 등 가까운 친족들을 파천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궁궐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선조의 파천 길에 동참한 왕실사람들이 더 있었다. 예컨대 선조의 친여동생에게 장가든 안황, 대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동생인 심충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의 남동생인 박동언, 선조의 사위인 서경주의 부친 서성 등이었다. 다만 이들은 양반관료로서 선조의 파천길에 동행하였다.<sup>14)</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파천 직전 입궐한 선조의 직계가족

대상자	신분	나이	입궐상황
선조 (1명)	국왕	41세(1552년 생)	궐내
선조의 배우자 (5명)	의인왕후 박씨(왕비) 숙의김씨-훗날의 인빈김씨(후궁) 정빈 홍씨(후궁) 정빈 민씨(후궁) 숙용 김씨-훗날의 순빈 김씨(후궁)	38세(1555년 생) 38세(1555년 생) 미상 미상 미상	궐내

12) 『서경주묘표』, “壬辰以扈從勞 加資養”.

13) 유성룡, 『懲愆錄』 권 1, 4월 30일, “初昏 召宰執議出避 上御東廂地坐 張燈燭 宗室河原君 河陵君等 侍坐”.

14)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30일.

선조의 아들 (7명)	임해군(왕자)-공빈김씨 소생 광해군(왕자)-공빈김씨 소생 신성군(왕자)-숙의김씨 소생 정원군(왕자)-숙의김씨 소생 순화군(왕자)-숙용김씨 소생 인성군(왕자)-정빈민씨 소생 의창군(왕자)-숙의김씨 소생	21세(1572생) 18세(1575생) 15세(1578생) 13세(1580생) 13세(1580생) 5세(1588생) 4세(1589생)	입궐(기혼) 입궐(기혼) 입궐(기혼) 입궐(기혼) 입궐(기혼) 궐내(미혼) 궐내(미혼)
선조의 딸 (2명)	정신옹주-숙의김씨 소생 정혜옹주-숙의김씨 소생	11세(1582생) 9세(1584생)	입궐(기혼) 궐내(미혼)
선조의 친형 (2명)	하 원 군 하 룡 군	48세(1545생) 43세(1550생)	입 궐 입 궐

### 3. 선조의 파천결정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왜군이 부산을 기습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소식이 조정에 알려진 때는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sup>15)</sup> 4월 17일 당일, 선조는 왜군을 막기 위해 8도에 左右防禦使를 파견하고 아울러 이일을 경상도 巡邊使로 임명해 그날로 출발하게 했다.<sup>16)</sup> 이런 조치는 통상적인 군사대응으로서 이는 선조가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선조가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4월 21일이 되어서였다. 그날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문경에서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그중에 “오늘날의 적은 神兵과 같아서 감당해 낼 자가 없으니, 臣은 오직 죽을 따름입니다.”<sup>17)</sup>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접한 선조는 미투리 등

15) 유성룡, 『懲毖錄』 권 1, 4월 17일, “早朝 邊報始至 乃左水使朴泓狀啓也”

16)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17일, “遂分遣八道左右防禦等使 以李鎰爲慶尙道巡邊使 即日拔遣”

17)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李鎰到聞慶馳啓曰 今日之賊 有似神兵 無人敢當 臣卽有死而已”

멀리 가는 도구를 구입하고, 또 사복시에 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정돈케 하였다.<sup>18)</sup> 만약의 경우에 파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연이은 급보와 함께 선조의 조치는 한양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여 피난 가는 자는 자들이 많았다.<sup>19)</sup> 4월 27일에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한양에 알려지자<sup>20)</sup>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패배 소식을 접한 한양 사람들이 대거 성 밖으로 피난 가는 바람에 도성을 지킬 병력이 부족하였다.<sup>21)</sup>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조정 신료들과 논의하지도 않고 파천하기로 결정한 후 은밀하게 파천 준비를 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유성룡의 『懲愆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이미 이일이 패전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니 인심이 흉흉해졌다. 궁중에서도 또한 파천할 뜻이 있었지만 外庭에서는 알지 못했다. 理馬 김응수가 賓廳에 이르러 영의정과 께속말을 하고 갔다가 다시 오니 보는 사람들이 의심했다. 이는 당시 영의정이 사복시 제조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승이 이항복이 손바닥에 ‘永康門 안에 말을 세우라.’고 하는 여섯 글자를 써서 나에게 보였다.<sup>22)</sup>

위에 보이는 永康門은 창경궁의 후원에 접해 있는 문으로서 조정 신료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은밀한 문이었다.<sup>23)</sup> 선조는 신료들 몰래 파천하기 위해 이곳에 말을 대령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선조가 파천하려 한다는 소문은 곧 퍼졌고, 조정 신료들은 물론 종친들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閣門

18)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於是 宮中亦有不固之志 遂賃繩鞋等遠行諸具 又命司僕寺 整立馬 以待不時之用”

1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3일, “時 南報漸緊 京城小民 多有避出外方者”

20)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7일, “李鎰到尙州 未及布陣 而一軍皆沒 是日報至”

21)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7일, “閭巷一空 雖欲守成 已無人矣”

22) 유성룡, 『懲愆錄』 권 1, “時 李鎰敗報已至 人心洶洶 內間有去邠之意 外庭不知 理馬金應壽 到賓廳 與首相耳語 去而復來 觀者疑之 蓋首相 時爲司僕提調故也 都承旨李恒福 於掌中書立馬永康門內六字 示我”

23) 『중종실록』 권 87, 33년(1538) 2월 26일(경오), “後苑永康門 晝則常閉 夕則開之 以通巡軍者 例也 其門與大內 只隔一門 密近莫甚焉”

밖에 모인 종친들은 통곡하며 도성을 버리지 말라 요구하였고<sup>24)</sup>, 영중추부사 김귀영은 “도성을 버리자는 의론을 주장하는 자는 곧 小人입니다.”<sup>25)</sup>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선조는 “종묘와 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장차 어디로 간단 말인가?”<sup>26)</sup>라고 하며 파천을 취소했다.

그러나 선조가 파천하려 했다는 소문은 불안한 인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다.<sup>27)</sup> 대신들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자를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sup>28)</sup> 이 결과 4월 28일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sup>29)</sup> 세자 책봉으로 인심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순변사 신립 장군이 충주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4월 29일에 전해지면서 한양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유성룡의 『懲愆錄』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신립이 떠난 후 서울 사람들은 날마다 싸움에 이긴 보고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30일) 전날(29일) 저녁에 전립을 쓴 사람 3명이 말을 달려 승인문으로 들어오므로, 성안 사람들이 다투어 전쟁 소식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순변사(신립 장군) 군관의 종들인데, 어제 순변사가 충주에서 패전하여 죽고, 여러 군사들도 크게 무너졌으므로 우리들은 간신히 몸만 홀로 빠져 나와서, 집안사람들에게 알리어 피란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전하고 알려서, 얼마 안 되어 온 도성 안이 모두 놀라게 되었다. 초저녁에 임금께서 조정중신들을 불러 한양을 떠나 피란 갈 일을 의논하였는데, 임금께서 東廂으로 나오셔서 마루에 앉았으며 촛불을 켜놓고 종친 하원군과 하릉군이 그 옆에 모시고 앉았다.<sup>30)</sup>

24) 유성룡, 『懲愆錄』 권 1, “宗親聚閣門外 痛哭 請勿棄城”.

25) 유성룡, 『懲愆錄』 권 1, “領府事金貴榮 尤憤憤 與諸大臣入對 請固守京城 且曰 倡議棄城者 乃小人也”.

26) 유성룡, 『懲愆錄』 권 1, “上敎曰 宗社在此 予將何適”.

27) 유성룡, 『懲愆錄』 권 1, “然事不可爲也”.

28) 유성룡, 『懲愆錄』 권 1, “大臣請建儲 以繫人心 從之”.

2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8일, “冊封光海君 爲世子”.

30) 유성룡, 『정비록』 권 1, 4월 30일조.

위의 기록대로 선조는 4월 29일 저녁에 신립의 패전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파천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파천 논의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일부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일부는 어쩔 수 없으니 파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천 반대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충주에서의 패전 보고가 이르자, 주상이 대신과 대간을 불러 입대하게 하고 비로소 파천에 대한 말을 발의하였다. 대신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함을 극언하였다. 영중추부사 김귀영이 아뢰기를, ‘종묘와 園陵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우승지 신잡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시지 않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에 80노모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수찬 박동현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輦을 멘 인부도 길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 하고 목 놓아 통곡하니 주상이 얼굴빛이 변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sup>31)</sup>

영중추부사 김귀영이 주장한 반대논리의 핵심은 종묘사직이 한양에 있으니 파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선조는 조상들을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논리로서, 이는 유교의 효도 윤리에 입각한 반대라 할 수 있었다. 우승지 신잡의 핵심 주장은 80 노모를 버리고 자신은 도저히 피난 갈 없다는 것인데, 이 역시 유교의 효도 윤리에 입각한 반대라 할 수 있었다.

『주자가례』에서는 홍수나 화재, 도적이 들어 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의 선후를 제시하였는데,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31)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4월 28일(정사), “忠州敗報至 上召大臣臺諫入對 始發去郛之議 大臣以下皆涕泣 極言其不可 領中樞府事金貴榮啓曰 宗廟園陵 皆在此 去將何往 當固守京城 以俟外援 右承旨申礪啓曰 殿下若不聽臣 終至播越 則臣家有八十老母 欲自刎於宗廟大門之外 不敢從殿下去也 修撰朴東賢啓曰 殿下一出城 則人心不可保 荷輦之夫 亦將委諸路隅而走矣 仍失聲痛哭 上色變 遽還內”

혹 홍수나 화재, 도적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하고 신주와 遺書를 옮긴다.  
그 다음으로 제기를 옮긴다. 그리고 난 후에 집안 재물을 옮긴다.<sup>32)</sup>

즉, 집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야 할 순서가 사당, 신주와 유서, 제기, 가재의 순서로 된 것이었다. 『주자가례』의 이런 가르침은 파천에 직면한 선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파천에 반대하는 신료들은 만약 한양을 버리고 가면 왜적이 한양에 들어와 종묘와 사직 그리고 능묘들을 파괴할 것이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집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사당을 구해야 하듯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제일 먼저 종묘와 사직 그리고 능묘들을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양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수찬 박동현은 파천하는 순간 인심도 잃고 나라도 잃을 것이라는 논리로 파천을 반대하였다. 수찬 박동현은 영종추부사 김귀영이나 우승지 신잡의 유교 윤리적인 반대와는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대논리를 제시한 것이었다. 요컨대 당시 파천에 반대하는 논리는 결국 유교 윤리론과 현실론 두 가지로 귀결되었다고 하겠는데, 이는 조선이 유교사회였기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조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선조는 파천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가 의외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놀라서 내전으로 들어가 버린 듯하다. 그러나 선조는 잠시 후에 다시 신료들과 만나 파천 의사를 또다시 제기했다. 당연히 신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반대논리는 이전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끝내 파천이 결정된 이유는 이산해와 유성룡 등 대신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천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양사에서는 곧바로 이산해를 파면하라고 요청하는 등 여전히 파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선조는 반대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유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파천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유교 윤

32) 『주자가례』 통례, “或有水火盜賊 則先求祠堂 遷神主遺書 次及祭器 然後及家財”.

리적인 측면에서 선조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파천을 함으로써 종묘와 사직 그리고 능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사당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즉 '신주와 유서'를 옮기는 것이었다. 선조는 종묘와 사직의 신주들을 모시고 오게 하여 파천 행렬에 동참시킴으로써<sup>33)</sup>, 유교 윤리적 반대에 어렵지 않게 대응 하였다.

그런데 유교 윤리적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였음에 비해, 수찬 박동현이 제기한 현실적 반대 논리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輦을 맨 인부도 길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라는 수찬 박동현의 언급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파천 시 선조의 輦을 메게 될 인부들은 선조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군사들이었다. 그런 군사들이 선조를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은 곧 선조와 조선왕실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조와 조선왕실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 같은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선조는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조선왕실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을 과시하려 했다.

그런데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왕자들을 諸道에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게 하고, 세자는 대가를 수행하게 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sup>34)</sup>는 언급을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선조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2명은 미성년이었다. 따라서 세자 광해군을 제외한다면 4명의 왕자들을 모두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4명의 왕자를 모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임해군과 순화군 두 명의 왕자만을 각각

33)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4월 29일, “令祠官奉廟社主先行 世子 隨後發 信城君珙定遠君陪從”

34) 유성룡, 『징비록』 권 1, 4월 30일, “因請分遣王子諸道 使呼召勤王 世子隨駕”

함경도와 강원도로 가게 했다. 당시 상황에서 다른 道에도 왕자들을 보내 근왕병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하필 함경도와 강원도에만 임해군과 순화군을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파천이 결정되던 당시 일차적인 파천 목적지는 개성 또는 평양이었다. 개성과 평양이 소재하는 황해도와 평안도는 차차 선조가 머물게 될 것이므로 그곳에서 왕자들이 근왕병 모집 활동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에 따라 아직 왜적이 침략하지 않은 강원도와 함경도가 근왕병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임해군과 순화군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선조가 신성군과 정원군은 자신을 수행하게 하고, 임해군과 순화군만 보내 근왕병을 모집하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우선 당시 임해군은 21세로서 선조의 큰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심을 많이 잃어 친동생인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에서 임해군과 광해군이 함께 있기는 매우 불편하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조는 큰아들 임해군을 함경도로 보냈다고 판단된다.

또한 15세의 신성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의 어린 순화군이 강원도로 파견된 이유는 선조의 개인적인 편애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조는 당시의 후궁 중에서 숙의 김씨를 가장 총애하였다.<sup>35)</sup> 또한 아들 중에서는 숙의 김씨 소생의 신성군을 가장 총애하였다.<sup>36)</sup> 선조는 파천 때문에 부득이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따라서 선조는 신성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광해군을 대신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성군의 친동생인 정원군 역시 숙의 김씨 소생이었기에 선조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왕병을 모집하게 된 임해군이나 순화군은 상대적으로 선조의 관심 밖에 있던 왕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조의 파천 결정은 이처럼 황급하게 이루어졌고, 파천 실행 역시 황급하게 이루어졌다. 파천 논의는 29일 저녁에 시작되었으므로 결론이 났을 때는 밤이 깊었다. 유성룡의 『懲毖錄』에 의하면, 파천 논의가 결정되고 잠

35) 유성룡, 『雲巖雜錄』, 雜記, “金氏寵冠後宮”

36) 유성룡, 『雲巖雜錄』, 雜記, “東宮未建 而信城最有寵於上”

시 후에 이일의 장계가 도착하였는데, 그때 更漏조차도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루는 오후 8시쯤인 초경부터 울렸으므로, 이일의 장계는 아무리 일러도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했다고 생각된다. 이일의 장계에는 왜적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도성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선조는 그날 새벽에 황급히 파천 길에 올라야 했다. 『白沙年譜』를 인용한 『연려실기술』에서는 선조가 30일 새벽 四鼓에 파천하였다고 하였는데<sup>37)</sup>, 사고는 새벽 2시쯤 되는 시간이다. 『선조실록』에는 파천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새벽에 주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백관들과 사람, 말 등이 대궐 뜰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주상과 세자는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淑儀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宮人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은 그 수가 1백 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반찬도 없었다. 병조판서 김응남이 흠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경기관찰사 권징은 무릎을 끼고 앉아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sup>38)</sup>

위의 내용을 통해 선조의 파천은 치밀한 계획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결정,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 역시 치밀한 계획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37) 『연려실기술』 권 15, 선조조고사본말, 壬辰倭亂大駕西狩, “三十日曉四鼓 車駕具發”

38) 『선조실록』 권26, 25년(1592) 4월 30일(기미)

#### 4.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양상

선조는 파천 결정과 동시에 임해군과 순화군에게 근왕병 모집 역할을 맡겼다. 이에 따라 임해군과 순화군 및 그들의 부인을 포함한 4명은 파천에 앞서 선조와 헤어졌다. 이외에 선조의 두 형 중에서 하원군은 안변으로 피난하고 하릉군은 통천으로 피난하면서 이들 역시 파천에 앞서 선조와 헤어졌다.<sup>39)</sup> 통천의 금강산으로 피난했던 하릉군은 관북지역이 왜적의 손아귀에 빠진 후 상황이 급박해지자 1592년 가을에 스스로 목을 매 죽는 비극을 당하였다.<sup>40)</sup> 선조의 파천 길에 동행했던 가족들 역시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4월 30일 새벽에 선조는 임해군과 순화군 및 그들의 부인들 그리고 하원군, 하릉군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 가족 17명과 함께 파천 길에 올랐다. 5월 1일 저녁에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이후 평양, 영변을 거쳐 6월 23일에 의주에 도착했다. 이처럼 파천 일정이 화급하고 위험하였기에, 선조의 직계가족들 중에서 파천 행렬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제일 먼저 신성군과 정원군이 파천 행렬에서 벗어났다. 5월 1일 저녁 선조를 따라 개성에 도착했던 신성군과 정원군은 5월 3일에 파천 행렬을 떠나 먼저 평양으로 갔다. 장차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파천하려던 선조는 먼저 신성군과 정원군을 기성부원군 유흥, 이조참판 이항복 등과 함께 평양으로 보내 성지를 수리하게 함으로써 평양을 사수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평안도 병사들을 불러 모아 어가를 기다리게 하였다.<sup>41)</sup> 신성군과 정원군은 선조가 5월 8일 평양에 도착함으로써 다시 파천 행렬에 합류했다. 이후 신성군과 정원군은 5월 29일에 다시 선조와 헤어져 먼저 영변으로 갔다

39) 『선조실록』 권 36, 26년(1593) 3월 10일(을축), “大駕西幸之初 上母兄河源君鎰避亂于安邊 河陵君鎭避亂于通川”

40)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10월 1일(정해)

41)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5월 3일(임술)

가<sup>42)</sup> 6월 13일에 선조가 영변에 도착함으로써<sup>43)</sup> 다시 만났다. 따라서 신성군과 정원군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일간 파천 행렬에서 벗어난 셈이 된다.

두 번째로 파천 행렬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정혜옹주였다. 5월 4일, 선조는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였다. 당시 선조의 파천 길에 동행한 왕자와 옹주 중에서 혼인 전의 왕자와 옹주는 3명이었다. 그 중 가장 어린 사람은 숙의김씨 소생의 의창군으로서 4살이었다. 그 위로 정빈 민씨 소생의 인성군이 5살 그리고 숙의김씨 소생의 정혜옹주가 9살이었다. 이들 왕자와 옹주는 당연히 그들의 생모가 보살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4살의 의창군과 9살의 정혜옹주는 모두 숙의김씨 소생이었다. 화급한 파천 행렬에서 숙의김씨 혼자서 두 명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이에 따라 9살의 정혜옹주가 5월 4일에 파천 행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당시 정혜옹주가 아직 어렸는데 피난길이 어수선하고 말을 준비할 수 없었으므로, 주상이 수행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자원하여 다른 길로 데리고 가서 난리를 피하게 하면 후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내수사의 관원 윤백상이 명령에 호응하여 길을 바꿔 황해도 산길로 들어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왜적을 피한 후 겨울에야 사잇길로 의주에 이르렀다. 정혜옹주는 뒤에 해송위 윤신지에게 하가하였다.<sup>44)</sup>

그런데 당시의 피란 행렬 중에서 가장 어린 왕족은 4살의 의창군이었다. 그럼에도 4살의 의창군 대신 9살의 정혜옹주를 다른 곳으로 피난 보낸 이유는 역시 딸보다는 아들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2)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29일

43)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6월 13일

44)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5월 1일(경신), “時 貞惠翁主尙幼 行中紛沓不能備騎 上命從官自願率往 從他路避兵 當有重賞 內需司官尹百祥應旨 轉入黃海山路 艱關避賊 冬從間路赴義州 翁主後嫁海高尉”

세 번째로 피난 행렬에서 벗어난 사람은 왕비 의인왕후 박씨와 세자빈 유씨였다. 5월 4일 개성을 떠난 선조는 5월 8일에 평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전황이 급박하여 6월 11일에 평양을 떠났다. 당시 선조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놓고 논의가 분분했다. 일부는 함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영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흥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함흥이 건국시조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자 험준한 산악지역이기에 조선 왕조로서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영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함흥도 불안하니 궁극적으로 명나라로 망명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영변으로 가야한다고 했다.<sup>45)</sup>

이런 논란 속에서 선조는 일단 함흥 쪽으로 가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함흥으로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6월 6일에 미리 왕비 의인왕후 박씨가 함흥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sup>46)</sup> 그런데 당시에 세자빈 유씨에게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젖먹이가 있었다. 즉, 세자빈 유씨는 지난 5월 12일에 해산하였던 것이다.<sup>47)</sup> 이에 의인왕후 박씨를 비롯하여 세자빈 유씨 그리고 왕자도 함흥으로 가게 되었다.<sup>48)</sup>

그런데 함흥으로 가게 된 왕자가 어느 왕자인지와 선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세자빈 유씨가 갓 낳은 아기는 분명히 생모와 함께 함흥으로 갔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5살의 인성군과 4살의 의창군 역시 함흥으로 갔으리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군의 생모인 정빈 민씨, 의창군의 생모인 숙의 김씨 역시 함께 떠났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결국 선조의 모든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의 어린 왕자들도 함께 보냈다고 보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정리하면, 6월 6일 의인왕후 박씨와 세자빈 유씨를 필두로 숙의 김씨, 정빈 홍씨, 정빈 민씨, 숙용 김씨 및 인성군, 의창군, 세자빈 유씨의 갓난아기 등이 미리 함흥으로

45) 박동량, 『寄齋史草』下, 壬辰日錄 권 1, 6월 2일

46) 박동량, 『寄齋史草』下, 壬辰日錄 권 1, 6월 6일

47) 정탁, 『藥圃集』 권 4, 雜著, 避難行錄, 萬曆壬辰 5월 12일(신미), “王世子嬪宮 解産”.

48)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6월 2일, “初六日 兪泓崔滉等 侍衛中殿嬪宮王子 發向咸興”.

떠났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의 뒤를 이어 함흥 방면으로 가려고 하자, 좌의정 윤두수가 함흥보다는 영변 쪽이 안전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선조는 그 건의에 따라 영변으로 향했다.<sup>49)</sup> 6월 13일에 영변에 도착한 선조는 6월 14일 세자 광해군과 길을 나누어 자신은 의주 쪽으로 가고 세자 광해군은 강계 쪽으로 가게 하였다. 이 결과 함흥으로 향하던 의인왕후 박씨 및 세자빈 유씨는 다시 길을 돌려 선조를 뒤따라 와서 6월 14일 선조와 합류하였다.<sup>50)</sup> 결국 의인왕후 박씨는 8일간 선조의 파천 행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반면 세자빈 유씨 및 갓난아기는 광해군을 따라가기 위해 또다시 선조와 헤어져 6월 17일이 되어 熙川에서 세자 광해군과 합류하였다.<sup>51)</sup> 의인왕후 박씨와 함께 함흥으로 떠났던 숙의 김씨, 정빈 홍씨, 정빈 민씨, 숙용 김씨 및 인성군, 의창군 등은 왕후와 함께 선조의 파천 길에 합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피난 행렬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세자 광해군이였다. 6월 11일 평양을 떠난 선조는 6월 13에 영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선조는 명나라에 망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망명을 하려면 의주로 향하는 정주 쪽으로 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흥으로 향하는 강계 방면으로 가야 했다. 선조는 비변사 당상, 대신들을 불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선조와 대신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이날 저녁에 또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최홍원이 아뢰기를, ‘윤두수의 장계를 보니 왜적의 형세가 이미 위급하여 이곳에 머무르는 것도 불안합니다. 중전의 행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산군수 성대업이 도로를 약간 알고 있기에 그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중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이곽이 아뢰기를, ‘중전께서는 분명 운산에 도

49)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1일(기해)

50)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6월 14일

51) “崔滉自寧邊 承命陪中殿 向咸興未至 而中路 陪嬪宮 是日 來從東宮之行”. 51) 정탁, 『藥圃集』 권 4, 雜著, 避難行錄, 萬曆壬辰 6월 17일(을사)

착하였을 것이니 왜적과 조금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였다. 최홍원이 아뢰기를, ‘大駕가 운산으로 가시면 내전과 서로 만나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곽이 아뢰기를, ‘지금 여기 들어온 대신들이 밖에 있을 때에 모두들 말하기를, 만약 강계로 가려면 운산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가면 운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의 뜻은 모두 나를 인도하여 강계로 가려는 것인가?’ 하였다. 정철이 아뢰기를, ‘어떤 계획이 좋은지 모르기에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일찍이 요동으로 갔더라면 좋을 것인데,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처음부터 항상 왜적이 앞에서 나타난 뒤에는 피해가 어렵다는 일로 말하곤 하였다.’ 하였다. (하략)<sup>52)</sup>

선조는 내심 명나라에 망명할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의 회의에서 선조는 요동으로의 망명을 전제하여 의주로 가고, 세자 광해군은 함흥으로 가는 것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다. 이 결과 6월 14일에 세자 광해군은 선조와 헤어져 강계 쪽으로 길을 잡았다.<sup>53)</sup> 이후 세자 광해군은 선조 26년(1593) 1월에 定州에서 선조와 재회하기까지 7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分朝활동을 벌였다.<sup>54)</sup>

6월 14일 영변을 출발한 선조는 정주를 거쳐 6월 23일 의주에 도착했다. 이즈음 전황이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의 해군이 연승을 거두면서 왜적의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게다가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적들을 공격했다. 여기에 더하여 12월 24일에 명나라의 이여송이 4만 3천여 원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면서 전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의주까지 파천했던 선조는 1년 반이 지난 선조 26년(1593) 10월 4일에 다시 한양에 입성할 수 있었다.

52)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3일(신축)

53)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4일(임진)

54) 『선조실록』 권 34, 26년(1593) 1월 20일(을해), “大駕發林畔 駐雲興館 夕次定州 是日 王子自寧邊 先到定州 迎候大駕”

〈표 2〉 파천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상황

대 상 자	신 분	최초 상황	중간 상황
선 조 (1명)	국 왕	파 천	파 천
선조의 배우자 (5명)	의인왕후 박씨(왕비) 숙의김씨-훗날의 인빈김씨(후궁) 정빈 홍씨(후궁) 정빈 민씨(후궁) 숙용 김씨-훗날의 순빈 김씨(후궁)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선조의 아들 (7명)	임해군(왕자)-부인 광해군(왕자)-부인 신성군(왕자)-부인 정원군(왕자)-부인 순화군(왕자)-부인 인성군(왕자) 의창군(왕자)	선조와 이별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이별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시종 이탈, 근왕병 모집 6.6-14 이탈, 분조활동 5.3-8/5.29-6.13 이탈 5.3-8/5.29-6.13 이탈 시종 이탈, 근왕병 모집 6.11-15 이탈, 함흥방향 6.11-15 이탈, 함흥방향
선조의 딸 (2명)	정신옹주-남편 정혜옹주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시종 동행 5.4 겨울 이탈, 황해도
선조의 친형 (2명)	하 원 군 하 릉 군	선조와 이별 선조와 이별	시종 이탈, 안변 시종 이탈, 통천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선조 37년(1604) 6월에 선조는 임진왜란 극복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신들을 책봉했다. 扈聖功臣, 宣武功臣 그리고 淸難功臣의 3공신이 그것이었다. 이 중에서 호성공신은 한양에서 의주까지 선조의 파천을 수행했던 종친과 관료들이었다.<sup>55)</sup> 반면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에서 큰 승전을 올린 장수들 및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한 사신들이었다.<sup>56)</sup> 마지막으로 청난공신은 임진왜란 중 발생했던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사람들이었다.<sup>57)</sup>

이 같은 3공신의 책봉은 선조가 임진왜란 극복의 주요 원동력으로서 자

55) 『선조실록』 권 175, 37년(1604) 6월 25일(갑진).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 爲扈聖功臣”

56) 『선조실록』 권 175, 37년(1604) 6월 25일(갑진). “以倭佞諸將及請兵糧使臣 爲宣武功臣”

57) 『선조실록』 권 175, 37년(1604) 6월 25일(갑진). “以討平李夢鶴 爲淸難功臣”.

신의 의주 파천, 명나라의 지원군 파병, 관병과 의병의 승전 및 반란 진압을 꾀한 결과였다. 선조는 호성공신과 선무공신을 책봉함으로써 자신의 의주 파천 및 청병외교를 임진왜란 승리의 탁월한 선택으로 공인하였던 것이다.

선조의 파천 길에 동행했던 가족 및 외척 중에서는 4명이 호성공신에 책봉되었다. 즉, 선조의 아들인 신성군과 정원군이 호성공신 2등에 책봉되었고, 선조의 친여동생에게 장가든 안황은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되었으며, 대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동생인 심충겸 역시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 이들 4명은 선조의 친인척 중에서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가 선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6월 14일에 영변에서 선조와 헤어진 세자 광해군은 分朝 활동을 벌이면서 전란극복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벌였다.<sup>58)</sup>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세자 광해군의 分朝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지 못하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야 공신에 책봉되었다. 광해군 5년(1613) 3월에 책봉된 衛聖功臣 80명이 그들이었다.<sup>59)</sup> 이들 중에는 세자 광해군의 처가 쪽 사람들, 즉 세자빈 유씨의 친인척이 적지 않았다. 이는 세자 광해군의 처가 쪽 사람들이 주로 분조 활동을 보좌하였기 때문이었다. 위성공신 1등에 책봉된 柳自新은 세자빈의 친정아버지였고, 2등에 책봉된 유희분과 3등에 책봉된 유희담은 세자빈의 친정오빠였다. 또한 2등에 책봉된 정창연은 세자빈의 외삼촌이었으며, 3등에 책봉된 유정립은 세자빈의 친정조카였다. 이들 5명은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광해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58) 임진왜란 중 광해군의 分朝 활동에 대하여는

손종성, 「壬辰倭亂 時 分朝에 관한 小考」, 『溪村閔丙河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남도영, 「壬辰倭亂 時 光해군의 활동연구」, 『국사관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참조

59) 『광해군일기』 권 64, 5년(1613) 3월 12일(경오), “所謂‘衛聖功臣者 錄壬辰從王於伊川全州者也 皆以義州扈從諸臣 分送爲撫軍司者 道路攀附者亦多”

〈표 3〉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공신에 책봉된 선조의 친인척

공신 명칭	이름	비고
호성공신	신성군 정원군 안황 심충겸	2등-선조의 아들 2등-선조의 아들 2등-선조의 매부 2등-대비 인순왕후 심씨의 친정동생
위성공신	유자신 유희분 정창연 유희담 유정립	1등-세자빈의 친정아버지 2등-세자빈의 친정오빠 2등-세자빈의 외삼촌 3등-세자빈의 친정오빠 3등-세자빈의 친정조카

## 5. 임해군과 순화군의 항전활동

세자 광해군의 분조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조의 직계가족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항전활동을 펼친 주인공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던 임해군과 순화군이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히기 이전까지 왜적에 대하여 다양한 항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임해군과 순화군 중에서도 특히 임해군의 항전활동이 두드러졌다.

4월 30일 새벽에 임해군은 영부사 김귀영, 칠계군 윤탁연 등과 함께 창덕궁을 떠나 함경도로 향했다. 임해군의 출발에 조금 앞서서 순화군은 황정욱, 황혁, 이기 등과 함께 강원도로 갔다.<sup>60)</sup> 5월 1일 경기도 抱川에 도착한 임해군은 그곳에서 우연히 순화군을 만났는데,<sup>61)</sup> 다시 길을 나누어 북으로 향하였다. 5월 3일 강원도 金化에 도착한 임해군은 그곳에서 왜적이 이미 춘천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金化와 춘천은 하루 일정밖에

60)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4월 30일(기미)

61)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1일(경신), “是日 順和君行次 適然相值”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임해군은 즉시 북으로 길을 재촉해 5월 5일에는 鐵嶺을 넘어서 함경도의 安邊에 도착하였고, 이어 9일에는 德源府에 도착하였다.<sup>62)</sup>

임해군은 5월 7일에 선조에게 狀啓를 올렸다. 5월 7일은 이미 철령을 넘은 임해군이 덕원부를 향해 가던 중이었다. 이때에 함경도는 물론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는 선조의 파천소문이 퍼져 인심이 크게 驚動하였다. 이에 임해군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別樣宣諭가 필요하다는 장계를 올렸던 것이다.<sup>63)</sup>

당시 선조는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임해군이 5월 7일에 보낸 장계가 언제 선조에게 도달하고 또 언제 회답이 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해군은 와해된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선조에게 장계를 보냈던 것이다. 임해군은 5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즉, 勤王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경도의 감사와 兵使를 소집하고 근왕 병력 200여 명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탁연의 『關北日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왜적이 도성에 침입하였으니 신하의 도리 상 마땅히 奔馳해야 하는바, 奔馳 문제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니 조치하는 즉시 달려 올 것을 함경감사와 함경병사에게 關文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신하의 도리 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왕명을 받아 한양을 떠나오던 날 선조께서 義旅를 불러 모으라고 하신 전교에 따라, 선후로 보낼 200여 명의 군사를 장수를 정해 奔馳하게 할 것 그리고 군량을 조치할 길이 없으니 (군사들이 지나가는) 부근의 각 지방 수령들은 마음을 다해 군량을 조치하게 할 것 그리고 각 지방의 守丞과 監官은 각각 그곳 창고의 곡식을 양을 헤아려 나누게 할 것 등을 경기감사, 강원

62)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28, 한국사상사학회, 2005, pp.150~152.

63)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7일(병인), “王子 初五日踰嶺 大概人心驚動 自楊州一路 人民散亂 若不別樣宣諭 則前頭之事 極爲可慮 臣等來伏嶺外 乘輿起居 京城消息 未得聞知 西望雲天 危涕自滂事 狀啓”

감사, 충청감사에게 關文으로 통지하고, 淮陽 一路의 수령들에게도 關文으로 통지하였다.<sup>64)</sup>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임해군이 함경도에서 벌인 근왕병 모집활동은 당시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조직을 통한 근왕병 모집활동이 가능했던 근거는 '신하의 도리'와 함께 '선조께서 義旅를 불러 모으라고 하신 전교'에 있었다. 또한 임해군은 근왕에 필요한 200여 명의 군사와 장수의 파견 그리고 군량의 징발 등을 경기감사, 강원감사, 충청감사, 회양일로의 수령 등에게 명령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선조가 임해군에게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라고 명령했지만, 임해군 자신은 근왕병 모집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함경도 이외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에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5월 8일의 특별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함경감사와 함경 兵使를 임해군의 행차로 소집한 것이었다. 함경도 감영은 함경남도의 함흥에 있었으며, 北兵營은 함경북도의 鏡城에, 南兵營은 함경남도의 北靑에 있었다. 당시에 함경감사는 柳永立이었고 함경 北兵使는 韓克誠이었으며 함경 南兵使는 李渾이었다. 따라서 함경감사 유영립, 북병사 한극함 그리고 남병사 이진은 임해군이 5월 8일에 보낸 關文을 늦어도 5월 10일쯤 전후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關文의 명령대로 했다면 함경감사 유영립, 북병사 한극함 그리고 남병사 이진은 5월 12일 전후로 임해군의 행차로 달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關文을 받았는지, 또는 關文의 명령대로 임해군의 행차로 달려왔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大駕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에 조정의 의논이 行宮의 宿衛가 너무 허술하다고

64)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8일(정묘), “是日 以賊入都城 臣子之義 所當奔赴 相議處置次 劃卽馳來事 關通于監司兵使 又以臣子之義 不可安坐 承命出來日 以號召義旅 事傳教 先後運二百留糧 措置無路 各其附近官 糧餉盡心措置 各官守令監官 各其倉穀 量數分給事 關通于京畿江原忠淸道監司 淮陽一路守令”

하여 함경남도과 북도의 兵使에게 下諭하여 ‘거느리고 있는 將官 중에서 그 반을 기한 안에 入朝시켜 宿衛를 갖추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북병사 한극함은 馳啓하기를 ‘병사의 임무는 事體가 막중한 것이며 또 藩胡와 서로 가까이 있어서 營門의 체면상 허술히 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다. 이 장계가 도착하자 조정에서는 깜짝 놀라서 혹자는 ‘붙잡아다가 그 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혹자는 ‘무식한 武夫가 사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니 오늘날과 같이 板蕩한 시기를 당해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만둔 적이 있었다.<sup>65)</sup>

선조는 5월 8일 평양에 도착하여 6월 11일까지 머물렀다. 따라서 선조가 북병사 한극함과 남병사 이진에게 보냈다고 하는 下諭는 5월 8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下諭는 임해군이 5월 8일에 보낸 關文보다 먼저 북병사나 남병사에게 도착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선조가 평양에서 보낸 下諭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던 임해군을 완전히 무시하고 곧바로 북병사와 남병사에게 전달되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윤탁연의 『關北日記』에 의하면 임해군과 순화군이 5월 1일 포천에서 만났을 때,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한 문제로 선조에게 狀啓하는 일이 논의되었다.<sup>66)</sup> 당시에 실제로 장계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에 포천에서 5월 1일에 장계가 작성되었다면 선조가 평양에 도착하던 5월 8일쯤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평양에서 선조가 북병사와 남병사에게 보낸 下諭는 임해군이 보낸 장계에 입각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임해군이 5월 7일에 보고한 장계가 참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설혹 임해군이 보고한 장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下諭가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하유는 임해군을 통해 북병사와 남병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선조실록』에 의하면 숙위를 위한 將官을 보내라는 선조의 下諭에 대하여 북병사 한극함은 거절한 반면 남병사 이훈은 호

65) 『선조실록』 권 38, 26년(1593) 5월 16일(기사)

66)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1일(경신), “事及策應之事狀啓”

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남병사 이혼은 선조의 下諭에 앞서 임해군이 보낸 關文에 따라 임해군의 행차로 갔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남병사 이혼은 임해군과의 논의 및 선조가 보낸 下諭에 따라 勤王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寄齋史草』에 의하면 남병사 이혼은 적병이 한양에 육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근왕병을 일으켜 漣川으로 와서 이양원과 군사를 합하고 그 곡절을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가 5월 1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sup>67)</sup> 또한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남병사 이혼은 부원수 申恪과 병력을 합해 양주의 蟹踰嶺에서 왜적과 싸워 70여명의 적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전투는 임진왜란 이후 관군이 올린 최초의 승전으로서 매우 중요했다.<sup>68)</sup> 남병사 이혼이 신각과 함께 양주에서 전투를 벌인 날자는 바로 5월 19일이었다.<sup>69)</sup> 즉 남병사 이혼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근왕병을 거느리고 함경도를 떠나 5월 19일에 양주에 도착하여 승전하였던 것이다.

당시 남병사 이혼이 거느린 병력은 최소한 3천5백 명 이상으로서 임진강에서 왜적을 막던 관군 중에서는 최정예 병력이었다.<sup>70)</sup> 이런 사실들로부터 임해군이 5월 8일에 보낸 關文을 받은 남병사 이혼이 근왕병을 이끌고 임해군의 행차에 들러 항전대책을 논의한 후 양주로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임진왜란 초반 남병사 이혼이 담당했던 근왕 활동은 바로 임해군의 근왕병 모집활동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해군은 함경도 주민들의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민활동을 벌였다. 예컨대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67)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19일, “南道兵使李渾 聞賊迫京城 遂起兵勤王 到漣川 與李陽元合兵 具啓曲折 朝廷遣人嘉獎之”

68)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5월 13일, “南兵使李渾兵適至 (申)恪合陣 遇賊于楊州解峴 邀擊破之 斬首七十級 自倭犯我國 始有此捷 遠近聞之聳動”.

6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19일, “申恪戰於蟹踰嶺 斬賊七十餘級 捷書至時 南報漸緊 京城小民 多有避出外方者”.

70)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5월 23일(임오), “南兵使又當來到 先送三千五百 最是精卒”.

함경도로 왕자를 모시고 간 상락부원군 김귀영과 칠계군 윤탁이 馳啓하기를, '왕자들을 나누어 보내어 인심을 진정시키려는 聖念은 실로 보통이 아니시지만, 신들이 변변치 못하여 父老들을 위로하고 깨우쳐 덕의를 선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우러러 절을 하고 기뻐하며 생기가 도는 것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천만 마디의 빈 말은 조그마한 실제의 혜택만 못합니다. 本道는 근래에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집집마다 다 전쟁에 나갔고, 마구간에는 말 한필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장의 말 1백여 필을 혹은 要路의 쇠잔한 역에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재능은 있으면서 말이 없는 병사들에게 지급하게 하소서. 또한 함경도의 공물 및 문소전, 연은전에 진상하는 物膳 등을 감면하라는 恩命을 내리시어 백성들이 다시 생기를 찾도록 하소서.' 하였다.<sup>71)</sup>

위의 기사가 실린 날자는 6월 4일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馳啓는 5월 말쯤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임해군은 함경남도 지역에 있었다. 위의 기사 중에서 '本道는 근래에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함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다 전쟁에 나갔고, 마구간에는 말 한필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윤탁연의 『關北日記』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당시에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게 하고 군량을 운송하도록 조치한 주체는 바로 임해군이였다. 따라서 임해군은 근왕병 모집과 군량 운송으로 함경도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자 그 고초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요청대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임해군이 임진왜란 초반에 함경도에서 근왕병 모집 또는 인심 수습을 위해 군사적 조치는 물론 행정적, 경제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음이 확실하다. 나아가 함경도의 상황이 급박했을 때 임해군은 함경도

71) 『선조실록』 권 27, 25년(1592) 6월 4일(임진), “咸鏡道王子陪行官上洛府院君金貴榮漆溪君尹卓然馳啓曰 分遣王子 鎮定人心 聖念所在 實出尋常 而緣臣等無狀 不能慰諭父老 宣布德意 而小民之拭淚瞻拜 欣欣生意 曷有紀極 第念千萬空言 不如一分實惠 本道近因調發軍兵 轉運糧餉 人則舉家赴戰 馬無一匹在廐 請以牧場馬百餘匹 或給要路絕替之驛 或給有才無馬之卒 且蠲革本道貢物 及文昭延恩殿物膳 使恩命出於上 而民生更得意”

지역의 수령 및 군사령관들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행사하였다.<sup>72)</sup> 결국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사적, 인사 행정적,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남병사 이혼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근왕병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임진강 방어선이 5월 27일에 와해되면서<sup>73)</sup> 평양의 선조는 물론 함경도의 임해군 역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임진강 방어선을 격파한 왜군은 황해도 평산의 安城驛에 이르러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로 각각 길을 나누어 따로 진격하였다.<sup>74)</sup> 당시 함경도로 진격한 왜장은 加藤清正이었는데, 그는 황해도 곡산을 경유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함경도로 들어갔다.<sup>75)</sup> 그때 남병사 이혼은 함경도로 들어가려는 왜군이 鐵嶺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淮陽 지역에 있었으므로<sup>76)</sup> 加藤清正是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함경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加藤清正的 함경도 진입은 평양의 선조나 함경도의 임해군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 이 결과 선조는 결국 관북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의주로 갔다. 함경남도에 있던 임해군은 마천령을 넘어 함경북도의 鏡城으로 퇴각하였는데, 당시에 순화군은 임해군과 함께 있었다.<sup>77)</sup>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갑자기 와해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함경도로 진입한 加藤清正是 6월 17일에 안변에 도착하였다. 가등청정군의 일부는 안변에서 歙谷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였는데, 가등청정은 나머지 군을 이끌고 함흥으로 진출하여 임해군과 순화군을 뒤쫓았다.

72)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7월 1일(무오), “初 李渾被執 金貴英等以便宜 除會寧府使李瑛爲南兵使”.

73)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27일

74)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5월 27일

75)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일(기축), “初 清正行長等同渡臨津 追上行 而慮車駕或轉北行 約分路進兵 清正勇猛冠軍 所領兵尤精悍 二將拈鬪定所向 清正得威鏡道 擒我民二人爲向導 一人辭以不識其路 賊斬之 一人懼而從之 從谷山地 踰老里峴, 出鐵嶺路, 嶺無守兵, 長驅以入”

76)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2, 6월 12일, “李陽元敗到安邊 遣從事官金廷陸口達 李渾盡殲淮陽之敵 盖聞道路之言也”

77)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北道之陷鄭文學收復, “臨海順和兩王子 聞賊兵在後(順和君初在江原道 賊入江原道 故轉向北道) 疾馳踰摩天嶺”

이에 북병사 韓克誠이 마천령에서 가등청정을 막으려 하였으나 대패하였다. 그 전투가 7월 18~19일간 전개된 함경북도 城津의 海汀倉 전투였다.<sup>78)</sup> 해정창 전투 패배 후, 북병사 한극학은 물론 남병사 이훈, 함경감사 유영립이 모두 도망하여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은 일시에 와해되었다.<sup>79)</sup> 이런 상황에서 임해군과 순화군은 7월에 회령으로 퇴각하였다가<sup>80)</sup> 7월 23일에 회령 사람 국경인에게 포로로 잡혔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임해군과 순화군이 포로로 잡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왜장 가등청정이 北界로 침입하니 회령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와 여러 재신들을 잡아 적을 맞아 항복하였다. 이로써 함경남도 와 북도가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 당초 가등청정이 고개를 넘어 왕자 일행을 끝까지 추격하니 왕자가 鏡城으로 도망하였다. 북병사 한극학이 마천령에서 항거하여 싸웠으나 海汀倉이 왜군에게 차단당하자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하였다. 왕자가 진로를 바꾸어 회령부로 들어갔는데, 적병이 가까이 추격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鎭의 土兵이 이미 모반하여 거짓으로 성을 지키겠다고 청하면서 스스로 문의 자물쇠를 간수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중략) 국경인이 마침내 객사를 포위하고 두 왕자 및 부인, 여종, 노비 등과 재상 김귀영, 황정욱, 황혁과 그들의 가솔을 잡아 모두 결박하고 마치 기물을 쌓아놓듯 한 칸 방에 가두었다.<sup>81)</sup>

위의 기록을 통해 회령의 국경인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등청정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 이외의 원

78)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28, 한국사상사학회, 2005, pp.151~152

79)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일(기축), “倭將清正入關北 咸鏡監司柳永立被執 兵使李渾爲賊民所殺”

80)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北道之陷鄭文學收復, “七月到會寧”

81)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7월 1일(무오), “倭將清正入北界 會寧人叛 執兩王子宰臣迎降 關南北皆陷于賊 初 清正踰嶺 而窮追王子行 王子奔 至鏡城 北兵使韓克誠 拒戰于磨天嶺 海汀倉爲倭軍所緦 軍潰而走 王子轉入會寧府 聞賊兵迫迫 欲向前 鎭土兵已謀叛 佯請守城 自守門鑰 使不得出 (중략) 景仁遂圍客舍 就執兩王子及夫人女侍一行奴婢等 與宰臣金貴榮黃廷或黃赫 並其家屬 皆綁縛置一間房 如積峙器物”

인을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애초에 임해군이 사로잡히기 (이전), 김귀영 등은 편의로써 회령부사 이영을 남변사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영은 남쪽으로 출정하는 것을 꺼려 남북도순변사가 되기를 요구했다. 이에 김귀영 등은 이영으로 하여금 (순변사를 삼아) 왕자를 배행하고 북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몽원으로 회령부사를 삼았는데 모두 사로잡히게 되었다. 김귀영은 늙고 혼미하였고, 황정욱 부자는 모두 아랫사람들을 단속하지 않아, 궁가의 종놈들은 도처에서 침학하고 소요를 일으켜 크게 인심을 잃었다. 이 때문에 국경인의 반란을 재촉하였다.<sup>82)</sup>

위에서는 국경인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김귀영의 늙고 혼미함, 황정욱 부자의 아랫사람 단속소홀 및 行朝와의 소식불통으로 인한 와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선조가 평양을 떠나 명나라로 망명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즉 6월 11일에 선조가 평양을 떠나 영변으로 향하면서 함경도에는 흉흉한 소문 즉 와언이 돌았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었다. 가동청정의 공격에 직면한 함경도 사람들은 선조가 함경도와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선조에 대한 반감 나아가 임해군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었다. 『선조실록』에서는 당시의 함경도 인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동지중추부사 이희득이 함경도 순찰사로서 복명하고 아뢰었다. ‘(중략) 北道는 왕화와 멀리 떨어져 있어 완악하고 모질고 무지하여, 원망에 의한 배반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대가가 평양에서 播越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더욱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명천과 길주의 백성들은 왕자가 향해 가는 곳을 일일이 썩 붙여 놓기까지 하는가 하면, 토병들도 반란을 일으켜 혹 主將을 살

82)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7월 1일(무오), “初 李渾被執 金貴英等以便宜 除會寧府使 李瑛爲南兵使 瑛憚南出 求兼南北道巡邊使 陪行王子入北 以文夢轅爲會寧府使 竝被執 金貴榮老昏 黃廷或父子皆不取下 宮家奴輩 到處侵擾 大失人心 以此促其叛亂”

해하기까지 하는 등 온 도내의 일이 매우 한심스러웠습니다. 왜적이 鏡城에서 곧바로 육진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이의 일은 차마 듣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 고을의 수령들 가운데 무변 출신이라 하여도 모두 산속으로 숨어버려 호령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한 도의 일을 수습할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략) 하였다.<sup>83)</sup>

선조가 평양을 떠나 명나라로 망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함경도의 인심은 견잡을 수 없이 이반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7월 18~19일의 행정창 패전으로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시에 와해되었다. 임해군을 수행하던 김귀영은 이영을 남북도순변사로 삼고, 문몽원을 회령부사로 삼는 등 와해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복구하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황정욱 부자의 아랫사람 단속소홀, 임해군의 난폭한 행동 등이 더하여져 국경인의 반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사적, 인사 행정적,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 결과 민심을 안정시키고 남병사 이훈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근왕병을 선조에게 보내는 등 커다란 공로를 세웠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런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임해군은 난폭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임해군의 난폭한 행동에는 개인적 비리나 실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군량과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과격한 조치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해군이 포로로 잡힌 후 그의 모든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선조 역시 임해군이 포로가 된 이유를 전적으로 임해군 개인의 비리 또는 실수 때문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

83) 『선조실록』 권 30, 25년(1592) 9월 15일(임신), “同知中樞府事李希得 以咸鏡道巡察使復命(중략) 北道 則王化絕遠 頑悍無知 怨叛尤甚 傳聞大駕自平壤播越之奇 益肆凶孽 明川吉州之民 至於王子所向之處 一一掛書 土兵亦叛 或殺主將 一道立事 極爲寒心 倭賊自鏡城直擣六鎮 其間雖有所不忍聞之言 列邑守令 雖武弁之人 皆入山藪 號令不通矣 一道之事收拾無路 至爲可慮”

런 점에서 임해군의 항전활동은 비록 짧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임해군의 被虜 문제에서도 임해군 개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 6. 맺음말

현재의 입장에서 임진왜란 극복과 관련하여 선조의 播遷과 대명 청병외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播遷과 대명 청병외교는 당시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播遷은 비겁함으로 대명 청병외교는 사대주의 발로로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조의 파천이 비겁함이라면 그 파천에 동행한 선조의 직계가족들 역시 특별한 주목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임진왜란 극복에서 명나라 지원군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선조의 파천, 대명 청병외교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선조의 파천에 동행한 직계가족들의 역할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파천에 동행했던 신성군, 정원군, 안황 등 선조의 직계가족들은 호성공신에 책봉되었다. 이들이 호성공신에 책봉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선조가 자신의 의주파천 및 대명 청병외교를 임진왜란 극복의 탁월한 선택으로 선전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조 개인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선조의 의주파천 및 대명 청병외교를 임진왜란 극복의 탁월한 선택으로 동의했기에 호성공신 책봉이 가능하기도 했다.

선조의 파천에 동행한 직계가족은 호성공신에 책봉됨으로써 또 광해군의 분조활동에 참여한 친인척들은 위성공신에 책봉됨으로써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함경도와 강원도에 파견되었던 임해군과 순화군 및 수행관료들은 반란군에게

포로로 잡힘으로써 불충과 무능의 대명사로 간주되었다. 『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 등 기왕의 역사기록에서는 임해군과 순화군의 항전활동 실패가 대체로 임해군과 순화군의 개인적 횡포 또는 무능 때문으로 기술되었다. 물론 임해군과 순화군의 개인적 횡포나 무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임해군과 순화군은 포로로 잡히기 전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사적, 인사 행정적,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조치들로 말미암아 남병사 이혼의 근왕병이 파견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진강 방어선이 돌파된 후, 가등청정이 함경도로 진입하고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함경도의 인심은 건잡을 수 없이 이반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18~19일의 해정창 패전으로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시에 와해되었다. 여기에 황정욱 부자의 아랫사람 단속소홀, 임해군의 난폭한 행동 등이 더하여져 국경인의 반란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임해군과 순화군이 포로로 잡힌 후에는 세자 광해군이 분조활동을 벌이면서 항전활동을 주도하였다. 여기에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명나라 지원군의 활동 그리고 수군의 활동 등이 더해지면서 임진왜란 초반의 수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세자 광해군의 분조활동은 물론 선조의 파천과 대명 청병외교 및 파천에 동행한 선조의 직계가족, 임해군과 순화군의 근왕병 모집활동 역시 충분히 주목받을만하다.

(원고투고일 : 2011. 9. 28,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임진왜란, 선조, 파천, 직계가족, 광해군, 신성군, 정원군, 임해군, 순화군, 근왕병

<ABSTRACT>

## A Study on the Refuge and Resist of King Seonjo's Famil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Shin, Myung-ho

We could imagine that the safety of king's family was one of the national priority in the monarchy country. of course, that was the same case in Joseon Dynasty. at the early stage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the Joseon Royal Forces have experienced several defeats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at that time, the safety of King Seonjo and his family was the national priority. Right after the defeat of General Shin Rib in the Chungju Battle, King Seonjo's refuge was decided in order to obtain the safety of King Seonjo and his family.

The other hand, the king and his family would have direct relation with nation's destiny. If a nation might be destroyed, the king would be no more king and his family would be no more royal family. Therefore, the king and his family should take the lead in order to overcome national crisis. So King Seonjo's refuge at the early stage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was very important not only in connection with the safety of King Seonjo and his family but also in connection with the fighting King Seonjo and his family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Right after the decision of King Seonjo's refuge, King Seonjo and his family fled to Gaeseong. At the same time, King Seonjo dispatched his two princes, who were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to Hamgyeong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in order to recruit the royal bodyguards. this action came from the sense of duty that the king and his family should take the lead in order to overcome national crisi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King Seonjo's family who attended the King Seonjo's refuge were installed as great contributor to the overcome of national crisis. for example, Prince Shinsung and Prince Jeongwon were installed as second contributor to the overcome of national crisis.

On the contrary,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who were dispatched to Hamgyeong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were regarded as great disloyalty. because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were caught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every official records blamed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as wild and selfish persons.

But before Prince Imhae was caught, he achieved great result not only in recruiting royal bodyguards from Hamgyeong Province but also in stabilizing the situation. For example, Prince Imhae recruited about 3,500 royal bodyguards from Hamgyeong Province.

However right after the decision of King Seonjo's refuge, which were regarded as a action of exile to Ming China, the people of Hamgyeong Province felt that they were discarded by King Seonjo. So the people of Hamgyeong Province resisted and abandoned Prince Imhae. After all, Prince Imhae was caught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in this matter, we could reevaluate prince im-hae's recruiting activity in Hamgyeong Province.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King Seonjo, King's Refuge, Immediate Family, Crown Prince Gwanghae, Prince Shinsung, Prince Jeongwon, Prince Imhae, Prince Sunhwa, Royal Bodyguard.